

“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 주간”

<http://www.sjkoreancatholic.org/>

[루카 23, 35 - 43]

2010.11.21.

금주의 강론

[허영업 마티아 신부님 강론에서]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리스도 왕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의를 재다짐하는 날이다. 요즘 세상에 무슨 왕인가 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생각

하는 일반적인 왕의 개념과는 한참 다르다. 특히 고통과 조롱 속에서 죽어 간 그분의 모습은 왕이란 단어가 무색하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라고 기도하신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늘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백성을 강제로 지배해서는 안 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왕권의 모습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원리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왕직이란 바로 봉사직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남을 섬기고 남의 종이 되어 주기는 실제로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봉사하면서 교만과 허세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세상을 통치하고 사회를 다스리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평화의 낙원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몸소 알려 주셨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성탄 전야제 음악회 연습** 금주 금요일(11월19일) 오후 8시에 성당에서 합창연습 진행합니다.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 경자 율리어나 자매님 1개월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정병권 라파엘 형제님(베이스)2주간의 여정으로 한국을 다녀 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십시오.
- 박 영아 소피아 자매님은 11월 30일에 2주간의 여정으로 한국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행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최다니엘 형제님 레스토랑의 확장 문제중 Municipal의 공청회를 모든 가족의 기도해 주신 덕택에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허가와 공사등의 관문이 남아 있지만 계속하여 우리가 기도가 뒷바침이 된다면 원만히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성심 성가대 정기 총회;**
12월 5일(일) 점심 식사후 연습실에서 개최합니다. 모든 성가대 단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재정결산 심의, 회칙 개정안 심의 (단원 회비 조항), 차기 단장 선출, 2011년 성가대 계획서 등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코린 II서 12,10)”



그때에 35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1분 명상

♡ 용서 ♡

(헨리 나웬)

헨리 나웬은
 용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한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 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고,
 끝까지 너그러이 용서한 데 대한 칭찬을 돌려받는
 쾌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차동엽의 《무지개 원리》 중에서 -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나는 걸 보니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닌가 봅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을 이해받고 용서받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더욱 너그러워져야겠습니다,



토막 교리

“미사 도구”



성합(聖盃. pyxis. Pyx, Ciborium, Ciboria)

성체를 담아 두거나 사제가 환자에게 성체를 영(領)해 주기 위해 성체를 모셔갈 때 쓰는 것이다. 성작과 비슷한 형태이나 뚜껑이 있고 성작과 마찬가지로 금속으로 만들어 내부를 도금한다



성반(聖盤. patena. Paten)

제병(祭餅)을 담은 둥근 접시로 초기 교회 때 신자들이 가지고 온 빵을 받아 미사 때 축성하여 다시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사용되었다. 현재는 보통 15cm 정도로 성작을 덮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다. 사제만이 성반을 축성할 수 있는데, 이는 성반에서 제병이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오늘 (11/21)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며 성서주간(11/27까지)입니다.
- 11월 28일(일)은 대림 제 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으로 ‘가해’를 따르게됩니다.